

기반시설, 향촌관광으로 영글어가는 향촌진흥의 꿈

장춘지역 유일한 조선족향진 - 유수시 연화조선족향에 가보다



연화조선족향 전경 / 드림사진

유수시 연화조선족향은 장춘지역의 유일한 조선족향진으로 호적인구가 2,086 명인데 그중 조선족 인구가 96%이다. 최근년간 연화조선족향은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조선족 특색을 갖춘 문화관광향진을 담체로 민족향진 경제사회 제반 사업의 혁신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연화조선족향 도로는 ‘고민’거리였다. 도로가 좁은 데다가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의 물이 도로 우까지 차올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특히 농사철이면 농기계는 물론 진흙이 비물에 뒤섞여 연화조선족향 전체가 진흙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연화조선족향당위 서기 류춘파가 기자에게 말한다.

현재, 연화조선족향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넓고 평탄한 아스팔트길이다. 주요 도로는 너비가 원래의 6미터에서 9미터로 확장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자의 증가가 아닌,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류춘파 서기는 말했다.

최근년간, 연화조선족향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향촌 주요 도로 확장, 안전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 하수관망 정비 등 기반시설을 보완했다. 주요 도로는 표준화 확장 공사를 통해 폭을 넓히고 하수관을 설치했으며 농촌 전력망 현대화와 급, 배수 시스템 개선, 주차장 건설을 병행해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 이를 토대로 일정한 자금을 투입해 립체적인 도로 복화사업을 진행했다. 주요 도로 양측에 단풍나무와 버드나무로 녹음길을 조성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흑삼국, 클로버 등 다년생식물을 심어 생태기능과 경관효과를 겸비한 ‘미니화단지대’를 만들었다. 봄에는 푸른색, 여름에는 노란색,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바뀌는 삼계절 경관을 조성하고 반복적인 투자가 없이도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문화관광산업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은 것으로 향후 고품격 관광자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연화조선족향 출신인 김룡군 향장은 이 도로가 진흙길에서 평탄한 도로

로 변해가는 전 과정을 지켜왔다. “이제 문밖만 나서면 아스팔트길이 집앞까지 뚫려있어 너무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길이 운통 진흙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문밖을 나서기를 망설였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김룡군의 말에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있었다.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길을 따라가면 조선족 특색 풍정이 느껴진다. 붉은기와에 하얀 벽의 벽돌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흰 담장에는 조선족 민속풍정과 민족정체 선전화가 그려



▲ 연화조선족향당위 서기 류춘파

져있다. 호심정이 물에 비끼고 자주빛 나무다리가 호수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는 연화호는 계절마다 자신의 특색을 뽐낸다. 연화조선족향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연화호 수계공원을 개조하고 나무다리, 호심정 등 경관을 추가하여 관광 필수 핫플레이스로 건설했다.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조선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조선족 전통 음식을 맛보고 있다. 연화조선족향에서는 이런 기회를 발견하고 농가력, 민박 등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화조선족향 주민들의 소득을 늘일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를 더욱 다원화시키고 있다.

“연화조선족향의 면모가 부단히 개선되고 지명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향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 집에 류숙한 손님은 적어도 200 명은 넘을 것이다. 수입도 짝짤했다.” 연화조선족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진관위가 전했다.

다년간 연화조선족향은 민족특색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 조선족 특색 문화관광향진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연화조선족향은 선후하여 연화조선족민속박물관, 관광농업시설, 연화민속문화광장, 특색거리, 관광 주차장, 화해미술문화공원 등 문화관광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총 1,500 만원을 투입했다.

현재 연화조선족향의 쌀농사는 대부분 합작사 경영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촌민들은 땅을 전문합작사에 임대해 임대료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해당 합작사는 규모 농업을 통한 과학 기술 실현전, 스마트 농업시설, 드론 등 선진적 농업기술로 기계화 작업을 실현해 생산효율과 입쌀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연화조선족향 천공미업은 현재의 선두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다. 일전, 천공미업은 또 남방의 모 대형 초밥집과 안정적인 공급 협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연화입쌀’을 남방에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연화입쌀’의 지명도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비록 ‘연화입쌀’은 ‘오상입쌀’과 비교했을 때 브랜드 영향력과 시장 규모에서 아직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독특한 맛과 품질 우세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며 유수시 입쌀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류춘파 서기는 “농업 분야의 벼농사는 이미 기반을 구축했고 따라서 ‘연화입쌀’의 브랜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연화조선족향의 주민들은 토지 임대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금후 주민들의 소득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은 향촌문화관광에 있다. 연화조선족향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등 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연화조선족향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관 류향휘 기자

90 세 정대원로인의 특별한 씨름사랑 주변에 감동 전해



▲ 87 키로그램이상급 우승자 유태균선수에게 황소 고삐를 넘겨주는 90 세 고령의 정대원로인

단오절 씨름경기에 단독으로 수만 원을 후원한 90 세 고령 조선족 정대원(鄭大元) 로인의 선행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5월 31 일, 연변주체육국과 연변주민조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연길시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가 주관한 ‘2025년 단오절 연변주민씨름경기’가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 현장에서 한복차림을 한 백발의 건장한 로인이 87 키로그램이상 경기 우승자 유태균선수에게 황소 고삐를 넘겨주는 황소 고령의 정대원로인이다.

“내 마음은 수십년전에 이미 씨름판에 스며들었소. 이 고삐가 씨름 꿈나무들의 미래를 잇는 힘이 되길 바라오. 이것이 내 인생 2막의 특별한 생일선물이요.” 황소 고삐를 건네며 한 정대원로인의 패부지언이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씨름대회를 울린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정할아버지, 정말 대단합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씨름장에 울려 퍼졌다.

수많은 씨름애호가와 관중들의 일치한 주목을 받은 이날은 정대원로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올해 단오명절은 정대원로인의 90 세 생일이자 젊은 시절 전통 씨름을 무척 사랑했지만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여 가슴속에 남았던 한을 푸는 날이기도 했다.

정대원로인은 오래전부터 단오절 민속씨름경기를 관람하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씨름선수의 꿈을 젊은 선수들이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으며 연변 씨름 운동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은 생각 이 시종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 유경봉기자

종즈에 담긴 조선족 로인들의 온정



중국인민들의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맞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록강분회는 최근 총협회의 위탁을 받고 중조 변경 압록강변에 위치한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를 찾아 현지 이민관리경찰들과 함께 단오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조선족 로인들은 민족복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오명절에도 부모의 곁을 떠나 타향에서 근무하는 청년경찰들과 마주앉아 정담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업무와 생활 상황을 세심히 물었다. 또한 경찰들과 함께 전통 음식인 종즈를 만들고 단체사

진 촬영, 춤노래로 반나절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의 이번 단오절 위문활동은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청년경찰들에게 국경 다리를 굳건히 지키고 대조선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측은 앞으로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와의 경민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 경제의 발전과 대외 경제무역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최창남, 천청정, 초광원(初宏远)

7 명 퇴역 로병사, 후대양성사업에 1,500 원 기증



▲ 퇴역 로병사 대표들에게 감사패 증정

6월 3일, 안도현왕덕태흥군소학교의 학생들은 안도현의 7명 퇴역 로병사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비록 오래전에 군복을 벗긴 했지만 차세대들의 성장과 교육사업에 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7명 퇴역 로병사는 6.1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자발적으로 1,500 원의 기부금을 모아 의미있게 사용해줄 것을 현민정및퇴역군인사무국, 안도현교육및체육국에 위탁했다.

두 부문은 이에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리고 소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한 76 권의 서적을 준비했다. 알심들어 준비한 서적들이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신적 식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7명의 퇴역 로병사들은 직접 안도현왕

덕태흥군소학교에 서적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 현장에서 두 부문은 애심 서적을 학교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7명 퇴역 로병사들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안도현왕덕태흥군소학교 소년대원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를 즐기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퇴역 로전사 대표는 “학생들은 조국의 미래이다. 오늘 기증한 서적들을 통해 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배우며 흥취유전자를 전승하여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표했다.

/ 정현관기자 /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